

강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78억 원 확보

2027년까지 신전면 일원 어울림센터 등 소득기반 시설 확충

강진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78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품화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한 삶터 조

성, 대다)까지 일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강진군은 올해 초 예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신전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마을 회관 및 안길 정비 등 3개 마을 주민 모두가 현장 평가를 준비했다.

또, 추진위원들과 전남도, 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에 사

업설명을 하는 등 군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대상지 선정을 위해 힘썼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그 결과 강진군은 '행복한 삶터 조성' 분야에 강원 삼척시 신남마을, 충남 태안군 등 9개 어촌마을과 함께 최종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78억 원(국비 70%, 군비 30%)을 확보했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로 2027년까지

신전면 일원 어촌지역에 ▲별정 갈대습지 워터 복원, ▲송천·사초 어울림센터 신축, ▲사초 앞길 안전거리 조성, ▲사초 담장 및 지붕정비 등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기 추진위원장은 "급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으로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5대 종류·규격 따라 936~2035만원 전액 지원

영암군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25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규격에 따라 936~2035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영암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Tire-1이하(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접수 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 대수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며, 군 환경보전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비율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및 청정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청산도의 밤 밝히는 '반딧불이 야행' 성료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청산포토팩토리, 청산도축제학교 주관으로 '제3회 청산도 반딧불이 야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반딧불이 야행은 지난 4월 열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와 같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사진 촬영과 행사장 관리, 프로그램 가이드 등 행사 운영도 직접 했다.

프로그램은 광해가 적은 청산도 단풍길과 밤바위에서 진행됐으며, 반딧불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반딧불이 예코 투어', '청산도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반딧불이 서식지를 트래킹 하는 '반딧불이 야간 트래킹'으로 구성됐다.

18일에는 봄의 왈츠 세트장에서 통기타 공연도 진행돼 주민과 관광객들은 청산도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반딧불이 야행은 청산도의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진행 전 반딧불이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주민은 "청산도 반딧불이 야행이 올해로 3회를 맞으며 청산도 여름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주민 주도 축제로 거듭나 점이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서 기자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취업지원 서비스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현정)가 정부로부터 여성의 취·창업과 고용 안정에 앞장서 온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3일 서울 스페이스살림에서 개최된 '제11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평가에서 취·창업지원과 서비스 제공 부분, 센터 운영 부분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편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분야에

서는 최고점을 받는 등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상위 10%에 포함돼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기관표창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등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우수센터 종사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는데 주네오세라미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황윤하 팀장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3개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면서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력단절 사전예방과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신안, 한발 빠른 음식문화 환경 개선

편리한 입식 테이블 설치지원... 관광객 맞이 준비

신안군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음식문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관내 일반음식점(위생업소)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은 기존업소와 신규업소에 입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411개소 중 187개소에 5억8천만원의 지원하여 2468개의 입식 테이블이 새롭게 설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업소 183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업소의 90% 이상이 입식테이블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신안군은 위생업소 45개소에 3억7천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노후된 영업장, 주방, 화장실, 간판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모범업소,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에 위생포, 일회용 앞치마, 수저집을 지원하는 등 깨끗하고 편리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안=박형래 기자

해남 "민선8기 힘찬 출발" 군민 소통행사로 열린다

내달 1일 "도약, 활짝 핀 해남" 주제 출범식·취임식

해남군 민선8기 출범식 및 명현관 군수 취임식이 군민 소통행사로 치러진다.

군은 오는 7월 1일 군민광장에서 "도약, 활짝 핀 해남"을 주제로 민선8기 출범행사를 갖는다. 특히 군은 민선8기 출범식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사로 진행해 군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는 일과가 마무리되는 오후 7시부터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정형화된 취임

식 행사보다는 군민들이 참여해 축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계획으로, 해남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과 중학생 익사이팅 맨스, 군민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예술단 공연 등이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제45대 해남군수로 취임하는 명현관 군수의 취임선서와 함께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등을 공표하는 취임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간소한 취임식 후에는 군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축하공연은 해남군 출신 풍물 전가자로 구성된 풍물굿패

해원,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천희심 명창, 해남군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홍자와 가수 금강이 출연한다.

군은 별도 내빈소개와 악력소개, 축하영상 등 없이 기념식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군민들의 참여와 재능기부 등으로 이루어진 축하행사를 전면 배치해 민선8기의 힘찬 출발을 군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제45대 군수로 취임하는 명현관 군수는 1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해남군의회 개원식 등으로 첫날 일정을 소화할 계획으로, 출범식 행사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정신 장애인 사회문화 현장체험 학습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명랑 해상케이블카, 진도타워 등에서 장애인 사회문화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현장 체험 학습은 평소 야외의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정신 장애인들에게 야외 나들이를 통해 장애인 간의 친밀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또 다

과 체험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향상 등을 유도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 현장 체험 학습은 야외 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문화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관광지 추천

☑ 실제 서킷에서 레이싱의 열정과 에너지 느껴보기!

☑ 가족과 함께 물놀이 즐기!

☑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인 트로트 역사 바로 알기!

☑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여행 즐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영암 월출산기린랜드

#월출산·기산윗길·구림전통마을